

세종대 파저강(婆猪江) 재정벌(再征伐)과 대외정벌 정책*

이 규 철**

1. 머리말
2. 파저강 재정벌의 준비와 단행
3. 북방 개척과 대외정벌
4. 맺음말

1. 머리말

세종의 재위기는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조선은 건국 이래 북방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태조와 태종은 명(明)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압록강과 두만강 북변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 본고는 박사학위논문 『조선초기의 對外征伐과 對明意識』의 일부분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박사

이러한 조선의 대외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정벌(征伐)’이었다.

세종은 파저강(婆猪江) 정벌에서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이만주(李滿住) 세력에 대한 재정벌(再征伐)을 계획하고 있었다. 1차 토벌 때는 이만주 세력에 대한 출병에 찬성했던 신료들이 제법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무리 없이 정벌을 추진해서 시행할 수 있었다. 반면 재정벌을 추진할 때에는 대부분의 신료들이 세종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파저강 일대에 대한 재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1차 정벌 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의 국정 주도권이 더욱 커졌음을 의미한다. 파저강 재정벌의 최우선 목표는 이만주의 포착이었다. 당시 조선이 이만주 포착을 정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은 건주위 여진 세력에서 구심점이 되었던 존재를 제거해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과의 주도권 다툼이었다. 조선은 사실상 자신이 영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파저강 일대에 이만주 세력이 명의 승인을 명분으로 이주했던 상황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더욱이 이만주 세력은 조선보다는 명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했다. 따라서 조선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통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세종대 파저강 재정벌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많지 않다. 하지만 두 명의 연구자가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남겼다. 우선 강성문은 재정벌의 원인을 이만주가 조선과 명의 관계를 이간하고 변경 지역의 계속된 침입 침입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홀라온 울적함에 돌렸던 태도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은 압록강 유역 여진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파저강 야인들을 지원해 양측의 세력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는

것이다. 또 재정벌의 목표가 이만주의 포착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당시 조선군이 이만주의 포착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재정벌이 실패로 평가될 수 있었지만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벌군의 공훈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¹⁾

노영구는 재정벌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심이 적었던 원인을 1차 정벌에 비해 적은 성과만을 얻어 완승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정벌의 원인으로서는 그 역시 이만주 세력의 침입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조선의 정벌이 사실상 실패했던 원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우선 1차 정벌 때와는 달리 6진 개척에 따른 여진족의 이합집산 현상으로 압록강 중·상류 지역과 두만강 하류 지역의 방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2차 정벌에서는 군사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전과는 달리 정벌의 준비와 시행에 대해 조정의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세종이 일부 신하들과 이를 추진했던 점도 군사 행동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원인으로 지적했다.²⁾

두 연구자 모두 기존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세종대의 파저강 재정벌을 주목해서 출병의 과정과 결과 등을 설명하고자 한 점은 조선초기의 전쟁과 대외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연구를 통해 재정벌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 내용들은 충분히 밝혀졌다. 특히 명과 건주위 이만주 세력의 관계와 조선의 압록강 일대 여진 세력에 대한 영향력 문제에 주목하고자 했던 부분은 중요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벌 자체에 대한 설명에 집중하다 보니 조선의 의도와

1) 姜性文, 1986 「世宗朝 婆猪野人の 征伐研究」, 『陸士論文集』 30, 165~166쪽, 168~169쪽, 173쪽, 175쪽 참조.

2) 노영구, 2008 「세종의 전쟁수행과 리더십」, 『오늘의 동양사상』 19, 예문동양사상연구원, 141쪽, 152~153쪽 참조.

당시 국제관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논증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미흡하게 느껴진다. 특히 정벌의 원인을 이만주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만 파악했던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당시 세종은 첫 번째 파저강 정벌을 시행한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지역에 대한 출병을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라기 보다는 조선의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정벌을 상시적으로 준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세종대 단행되었던 파저강 재정벌을 둘러싼 조선 조정의 논의와 실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세종대 시행되었던 파저강 재정벌의 원인과 조선 조정의 의도 등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북방 정책 속에서 갖는 의미도 함께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15세기의 조선이 대외정벌의 실패가 가져올 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여진 지역에 대해 출병했던 원인 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파저강 재정벌의 준비와 단행

세종은 1차 파저강 정벌에서 큰 성과를 올렸음에도 이만주 세력에 대한 재정벌을 계획하고 있었다. 파저강 재정벌은 언뜻 보기에 건주위 야인의 침입 때문에 촉발된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우선 건주위(建州衛) 야인들의 침입에 대한 기록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17년(1435) 1월 평안도감사는 오량합(吾良哈) 야인 2,700여 명이 여연성(閔延城)을 공격해 왔지만 격퇴했다고 보고했다.³⁾

3) 『世宗實錄』 권67, 世宗 17년 1월 18일 경인

그런데 5개월 후 귀화한 파저강 야인이 이만주와 홀라운 올적합(忽刺溫 兀狄哈)이 여연을 침략해 남자 두 명을 살해하고 남녀 7명, 말 6필, 소 5마리를 사로잡아 갔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세종은 즉시 도절제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정보는 사실로 확인되었다. 여연 지역의 장수들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던 것이다.⁴⁾

7월에는 평안도감사가 야인 20여 명이 강을 건너와 소훈두(小薰豆) 지역에서 조선군과 교전 중이라는 소식을 보고했다. 이에 세종은 정승들에게 황제의 조치에 따라 야인들을 침벌하지 않고 무효했는데 봄부터 계속 침범을 하니 이러한 사정을 자세하게 적어서 황제에게 보고하겠다고는 생각을 밝혔다. 동시에 야인에 대한 처치를 일일이 황제에 주청한다면 이것이 전례로 남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다. 대신들은 야인들이 변경을 침범했던 사유만 갖추어 주청하자는 의견을 냈다.⁵⁾

7월 25일에는 야인 20여 명이 다시 여연을 침략해 조선군 3명이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다.⁶⁾ 결국 조선에서는 9월에 동지중추원사 이사검(李思儉)을 정조사로 파견하면서 야인들의 변경 침입 문제를 함께 주문하도록 했다.⁷⁾ 다음 해 2월 이사검은 황제의 칙서를 받아서 귀환했다. 정통제는 칙서에서 야인들이 다시 침범할 경우 그들의 근거지를 섬멸해서 변방 백성을 보호하고 편안함을 얻게 하라고 지시했다.⁸⁾ 야인의 침략이 또 있을 경우 사실상 조선의 군사 행동을 허락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 해 5월에는 올량합 5백여 기가 여연의 조명간 구자(趙明干

4) 『世宗實錄』 권68, 世宗 17년 6월 13일 계축

5)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7월 16일 을유

6)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7월 25일 갑오

7) 『世宗實錄』 권69, 世宗 17년 9월 21일 기축

8) 『世宗實錄』 권71, 世宗 18년 2월 17일 계축

口子)를 다시 공격해 조선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⁹⁾ 다음 달 세종은 신료들에게 태종대의 정벌과 이만주의 침입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만주에 대한 제어책을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97명의 신료들이 세종의 지시에 따라 야인 제어 대책을 보고했다.¹⁰⁾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신료들이 출병을 건의했지만 흉년 때문에 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변방 방어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건주위 야인들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¹¹⁾

실록의 기록에서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세종이 4품 이상의 신료들에게 변방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내용에는 파저강 정벌 계획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 변방 제어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하면서 태종대 정벌을 통해 야인을 제압했던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¹²⁾ 실제로 신료들이 제안한 변경 대책에는 찬반의견이 섞여 있었지만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¹³⁾ 정벌 시행에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적었다. 조정의 대부분이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다음과 같은 의견까지 제시되었다.

저 이만주란 자는 산간의 조그마한 오랑캐입니다. 그 산세의 험함에 의지하고 흘러온의 세력에 의탁하여, 숲속에 숨어 있다가 몰래 도둑질할 계획을 노리고 있으니 그 죄가 가득차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거사하여 들어가 정벌하여 북방을 돌아보게 하는 우환을 영원히 근절시킬 때가 지금입니다.

9)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5월 23일 무자

10)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6월 20일 을묘

11)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16일 경진

12) 『世宗實錄』 권72, 世宗 18년 6월 20일 을묘

13) 세종은 4품 이상의 대신들이 건의했던 외구 제어책 두 질을 초출, 등사하여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蕝)에게 보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기록이었는데 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정벌에 관한 것이었다. 의견에 대한 건의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정벌 시행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대다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정에서는 출병에 반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世宗實錄』 권73, 18년 世宗 윤6월 18일 계미).

그러나 적도들이 이와 같은 까닭은 모두 전일에 (저들의) 죄악을 토벌하는 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 정벌하게 되면 그들의 분노가 더욱 깊어지게 되어 보복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변경이 충실하지 못한데 어찌 그들을 감당하겠습니까?¹⁴⁾

위의 기록에 따르면 건의자는 이만주 세력이 조선의 변경을 침입할 기회를 노리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야인들이 최근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원인이 조선의 정벌 때문임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토벌에 반대했다. 야인들의 침입이 증가한 중요한 원인이 오히려 조선의 정벌이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세종은 함길도 감사 정흠지(鄭欽之)에게 전지를 내려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야인의 정체에 대한 정보들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정보 활동을 통해 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이때 세종은 이만주가 흘러온 울적함이 조선의 변경에 침입한 일에 자신은 관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도 공격을 당했다고 했던 진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변경을 침입한 세력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김종서의 보고를 통해 이만주 세력이 실제로 다른 여진 세력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동시에 세종은 이만주가 여러 번 침입해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마땅히 토벌해야 하지만 흉년 때문에 군사를 움직일 수 없어 아직 내버려두고 있다고 했다.¹⁵⁾

조선의 변경을 침입했던 여진 세력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그 주체라고 의심했던 이만주가 다른 세력들에게 공격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만주 세력에 대한 재정벌 의지를

14) 『世宗實錄』 권73, 18년 世宗 윤6월 18일 계미

15)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7월 18일 신해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이었다. 앞서 그는 신하들의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의사를 표명했다.¹⁶⁾ 하지만 당시 신료들이 실제로 정벌을 건의했던 기록은 찾기 어렵다. 또 파저강 야인의 근거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던 조치를¹⁷⁾ 통해서도 세종의 정벌 의사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와중에 흘러온 울적합의 조선 변경에 대한 침입은 계속 되었다.¹⁸⁾ 9월 말에는 3천여 명에 달하는 울적합이 경원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¹⁹⁾ 이러한 상황이 되자 세종 역시 이만주가 흘러온 울적합과 연계되어 있다는 생각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만주 세력과는 상관없이 흘러온 울적합이 단독으로 변경을 침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세종은 끝까지 파저강 야인과 흘러온 울적합의 공모설을 부정하지 않았다.²⁰⁾

조선의 정벌이 침입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당연히 울적합 정벌이 준비되어야 했다. 조선의 변경을 계속 침입하고 있었던 것은 이만주 세력이 아니라 흘러온 울적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울적합에 대한 정벌 의지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²¹⁾ 이것은 조선의 대외정벌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16) 『世宗實錄』 권73, 世宗 18년 윤6월 16일 경진

17) 위와 같음.

18) 『世宗實錄』 권74, 世宗 18년 9월 7일 기해

19)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0월 3일 을축

20)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0월 6일 무진

21)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세종에게 울적합 정벌을 건의했다. 이에 세종은 재이(災異)와 흉년이 겹치고 북방의 민심이 안정되어 있지 못해 경솔히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정벌 계획을 일단 유보하도록 지시했다(『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1월 5일 병신).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세종의 태도 역시 조선초기 대외정벌의 원인을 외부 세력의 침입에서만 찾는 시각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준비되어 시행된 대외정책의 한 가지였음을 의미한다.

다음 해(1436) 5월 세종은 야인들이 계속 침범한다면 토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평안도 변경 지역에 대한 체탐(體探) 활동을 통해 이들의 근거지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²²⁾ 이 와중에 함길도 감사 이숙치(李叔時)는 이만주가 아목하(阿木河) 지방 야인들의 건주위 이주를 허락하는 내용의 칙서를 받아서 국경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건주좌위 도독이던 동범찰(童凡察)은 이만주의 세력권으로 이주해 살고자 했지만 조선의 눈치를 보느라 옮겨가지 못하고 있었다. 범찰은 지휘 이올흑(李兀黑)을 명에 보내 이주를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고, 황제가 이들의 이주를 공식적으로 허락한다는 칙서를 내렸던 것이다.²³⁾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는 이만주가 국경 근처에 와서 여러 날을 머무르니 기회를 봐서 토벌할 것을 건의했다.²⁴⁾ 하지만 세종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도록 지시했다.²⁵⁾

그런데 세종은 사흘 후 정승들을 불러 이만주가 성지를 칭탁하여 조선의 국경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며 토벌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황희 등은 이만주가 성지를 받들고 와 있으므로 토벌할 수 없고, 침략하려는 기미가 없는데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킬 수 없다며 반대했다. 또한 토벌에 대한 소식이 명에 전해지는 것은 더욱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록 성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관계된 것이 아니니, 성지가 왔던 오지

22)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1일 경자

23)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2일 신축

24) 이만주가 머물렀던 곳은 실록의 기록에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함길도감사 이숙치의 보고 내용과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의 보고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기 위해 아목하(阿木河) 지방까지 직접 와서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5)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3일 임인

않았던 진실로 논할 것이 없다. 하물며 전에 성지가 있어, “야인에게 만약 성과를 올릴 만한 형세가 있거든 비록 그 처소에 들이닥쳐 사로잡아 오더라도 오히려 가하다.”고 했다. 지금 이유 없이 갑자기 국경 근처에 이르렀으니 어찌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이 혹여 우리 땅에 더욱 가까워진다면 역시 명분 없는 군사라 생각하여 군사를 일으켜서 쫓아버릴 수 없다는 것인가?²⁶⁾

위의 기사에서는 세종이 이만주가 아목하 지역의 야인들에게 황제의 칙서를 전하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칙서의 내용은 조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세종은 다른 국가나 세력에게 내린 황제의 지시는 조선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세종은 이만주가 이유 없이 국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까지 주장했다.

이만주가 황제의 칙서를 전달하라는 황명(皇命) 때문에 이 지역에 와 있다는 점을 세종은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만주 역시 황명을 전하러 온 자신을 조선에서 공격하거나 잡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의 국경 근처까지 칙서를 갖고 직접 왔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자기만의 논리를 강변하면서 이만주에 대한 정벌을 정당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세종은 조선에 내렸던 칙서의 내용 중에 “야인에게 만약 성과를 올릴 만한 형세가 있거든 비록 그 처소에 들이닥쳐 사로잡아 오더라도 오히려 가하다.”고 한 부분을 근거로 이만주 특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세종은 황제의 지시를 필요에 따라 이용하거나 무시하고 있었다. 특히 이만주에 대한 특별이라는 국가적 목표 앞에서 사대명분까지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종은 새로 설치된 4진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26)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16일 을사

지적하며 정벌 계획을 중지시켰다.²⁷⁾ 일단 신하들의 정벌 반대의 견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평안도 변경 지역에서는 체탐 활동을 강화하면서 파저강 야인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²⁸⁾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내린 전지에서 체탐 활동의 강화가 정벌에 필요한 적의 형세와 지형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했다. 다만 지나치게 잦은 정보 활동은 오히려 적에게 조선의 의도가 발각될 위험성이 있으니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²⁹⁾ 세종은 체탐 활동과 정벌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표명했던 것이다.

결국 평안도 도절제사 이천(李蕝)은 체탐 활동을 통해 수집한 적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파저강 정벌에 대한 계획을 상언했다.³⁰⁾ 이에 세종은 대신들에게 계축년(세종 15년, 1433)에 파저강을 정벌하면서 다시 거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점과 황제의 칙서에 야인의 소굴을 추궁하라고 한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파저강 정벌에 대한 뜻이 오래 전부터 있었음을 밝히며, 정벌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의했고 가을에 출병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³¹⁾

이 과정을 살펴보면 세종은 사실상 정벌 의사를 확정해 놓고 있었으면서도 신료들과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세종은 이천에게 내릴 전지의 초고를 직접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 역시 국왕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도승지 신인손(辛引孫)과 좌부승지 김돈(金敦)에게만 보여주었다. 아울러 보안을 이유로 다른 신료들에게 정벌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도록 지시

27)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0일 기유

28)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1일 경술;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5월 28일 정사

29)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9일 정묘

30)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1일 기사

31)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4일 임신

했다. 그리고 예전 논의에서 정벌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찬성 신개(申概)에게 두 승지를 보내 용병 계획을 논의해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³²⁾

세종은 집권 전반기에는 비교적 많은 토론을 거쳐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국정 주도권을 국왕이 가진 상태에서 진행되는 논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많았지만 대신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또 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파저강 정벌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결정하는 일에서 세종은 대신들의 의견을 거의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료들의 논의가 정벌에 반대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자 이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소수 측근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벌의 시행을 결정했다.³³⁾

이는 세종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 자신의 의도를 보다 많이 반영할 것임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태조대 요동 정벌 추진 과정과 같이 국왕과 최측근 신하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하는 운영 방식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다.

세종의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세종 15년에 단행했던 파저강 정벌의 성공이었다고 생각한다. 세종은 정벌의 성과를 통해 대외적으로 조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일에 성공했음은 물론 국내 정치에서도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상당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해서 얻은 성과였던 만큼 세종은 정벌의 성공을 통해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

32)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6월 14일 임신

33) 실록의 기록에서 파저강 재정벌을 지지했던 것은 승지들과 신개 정도로만 확인된다. 하지만 세종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김종서가 함길도 도절제사로 있으면서 홀라온 울적합에 대한 정벌을 계속 건의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 세종의 파저강 정벌 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으로 세종은 정벌이라는 큰일을 거의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대외정벌을 시행해 이를 바탕으로 파저강 일대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 판단한다.

당시 조선의 재정벌 목표 중 중요한 한 가지가 이만주의 포착이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아직 이만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승지 김돈은 이만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당시 한양에 와 있었던 범찰의 수하 고치(古赤)에게 정보를 얻을 것을 제안했다.³⁴⁾ 조선은 결국 고치에게서 이만주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이를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전달했다. 당시 세종은 이만주가 정벌군을 피해 도망가거나 이주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했다.³⁵⁾

조선에서 정벌을 통해 이만주를 포착하고자 노력했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된다. 우선 건주위 야인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이만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은 여진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조선에서는 여진 세력이 경제와 군사 등의 문제에서 자신들에게 의지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능력 있는 추장을 중심으로 여진 세력을 규합해 주변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면 조선의 통제력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것은 당시 조선에서 이만주가 조선보다는 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추장이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만주는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올 때 조선의 허락을 구하기에 앞서 황제의 성지를 받아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⁶⁾ 이러한 구도에서 조선은 이만주가 파저강에 살면서 조선의

34)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19일 정미

35)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7월 19일 정미

36) 『世宗實錄』 권24, 世宗 6년 4월 26일 신미

영향력 아래에 들어온다기보다는 명의 영향력 하에 있으면서 타타르(韃靼) 군의 침입 때문에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들어왔던 것으로 파악했을 수 있다.

더욱이 이만주는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 오고서도 조선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이만주가 파저강 일대, 더 크게는 압록강 일대에 대한 조선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선을 상국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태도 역시 조선의 불만을 키웠던 것 같다.³⁷⁾

또한 조선에서는 이만주를 명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보낸 일종의 전초 세력으로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만주는 해당 지역에서 원래부터 생활하면서 조선과의 관계를 유지하다가 명의 관직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명의 관직을 받은 상태에서 사실상 조선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던 파저강 일대로 이주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만주 세력이 조선과의 교역이나 교류에 크게 노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이들이 명과의 교류를 통해 경제적 수요를 해결하면서 부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둔다면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물론 조선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압록강 일대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만주 세력이 압록강과 파저강 일대에서 거주하면서 조선의 주도권과 지배력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조선의 정벌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8월 14일 세종은 평안도 도절제사에게 명령을 전하여 정벌을

37) 실제로 이만주가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던 시기가 파저강 1차 정벌 이후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정황은 더욱 명백해진다.

통해 적의 괴수인 이만주를 사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때문에 다른 적들을 놓친다면 오히려 둘 다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적의 근거지 소탕을 목표로 삼도록 지시했다.³⁸⁾ 좌찬성 신개는 정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적의 괴수를 잡는 것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상등의 공으로 포상할 것을 건의했다.³⁹⁾ 조선에서는 같은 달에 성절하례사를 파견했는데 파저강 정벌에 대한 내용은 주본에 포함되지 않았다.⁴⁰⁾ 조선은 파저강 정벌을 일단 명에 보고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 평안도감사는 지난 7일 도절제사 이천이 정벌군 8천여 명을 3길로 나누어 출동시켜 압록강을 건넜다는 사실 등을 보고했다.⁴¹⁾ 8일 후 평안도감사는 다시 정벌군의 교전 상황과 전과, 회군 사실 등을 보고했다. 정벌군은 11일에 고음한(古音閑)을 공격했다. 좌군은 홍타리(紅拖里)로 향했고, 도절제사의 군대는 오자점(吾自岾)에서 강을 따라 내려와 적의 근거지를 공격했다. 파저강 일대에 대한 정벌은 6일간 계속되었는데 야인들이 미리 알고 숨거나 도망가서 소규모 전투만 진행되었을 뿐이었고 큰 전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벌을 통해 조선이 죽이거나 잡았던 적군은 60명에 불과했다.⁴²⁾

세종은 정벌의 전공에 따라 이천과 박안신 등에게 벼슬을 하사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외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을 겸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⁴³⁾ 하지만 이번 정벌은 작전의 최대 목표였던 이만주 포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8)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14일 신미

39)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22일 기묘

40)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8월 28일 을유

41)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14일 신축

42)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2일 기유

43) 「以尹延命爲嘉靖海平君 李藏正憲戶曹刑書 兼平安道都節制使 沈道源中樞院使 鄭甲孫藝文提學 金孟誠戶曹參判 禹承範禮曹參判 朴安臣嘉靖工曹參判 兼平安道都觀察使 姜壽同知中樞院事 李宣中樞院副使 時無以京職帶外任者 李藏安臣 以征伐之功 特拜是職 蓋寵異之也」(『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5일 임자)

과거 정벌에 비해 획득한 전과도 매우 적었다.

비록 정벌군의 규모가 지난 정벌에 비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지만 대규모 정보 활동 등을 통해 상당 기간을 준비해서 시행했던 군사 행동의 성과로는 부족함이 많았다. 이만주의 포착이나 적지의 소탕이라는 두 가지 정벌 목표가 모두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⁴⁾ 그러나 세종은 이번 정벌을 통해 이만주를 잡지는 못했지만 당류(黨類)를 많이 잡았고, 우마와 곡식 등을 모두 태웠으니 거의 징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⁴⁵⁾ 세종 자신은 정벌 결과를 성공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정벌의 성과를 성공적인 것이라고 정리했던 세종의 견해는 논공 포상 과정에서 대신들의 반발을 야기했던 것 같다. 세종이 정벌의 논공포상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신들의 의견을 구했기 때문이다.⁴⁶⁾ 실록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정벌에 대한 논공 과정에서 전공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며 포상을 중지하거나 최소한 축소하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것은 우의정 노한(盧閑)이었다. 그는 이천이 토벌한 것은 적의 농막 한두 곳에 불과하다는 점과 적을 구분하지 않고 부녀자까지 모두 죽였던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리고 이천이 얻은 전과는 여연 판관 이종효(李宗孝)에게 2~3백 명의 병력만을 거느리고 가게 했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종은 포획한 인원이 60여 명에 이르고 군사가 온전히 돌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전날에는 정벌의 승전을 치하했다가 다시 정벌의 성과를 부정하는 태도를 강하게

44) 노영구는 과거강 2차 토벌의 최대 목표였던 추장 이만주의 제거에 실패한 점과 논공 과정에서 정벌군의 사령관 이천의 승진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세종 당시에도 2차 토벌전을 성공적인 전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다(노영구, 앞의 논문, 141쪽 참조).

45) 『世宗實錄』 권78, 世宗 19년 9월 29일 병진

46) 『世宗實錄』 권79, 世宗 19년 10월 17일 계유

비판했다. 결국 세종은 노한의 발언을 문제 삼아 그를 파직했다.⁴⁷⁾

세종의 조치는 노한의 발언 내용 자체와 태도 등을 문제 삼았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종이 노한을 파직했던 근본적 원인은 그가 정벌의 성과를 부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노한이 재정벌의 전공은 2~3백 명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세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것 같다. 즉 노한의 파직 사유는 성급한 발언이나 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벌의 성과를 부정했던 부분에서 근본적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더 눈여겨 볼 것은 노한이 우의정이었다는 점이다. 세종은 정승의 위치에 있는 대신이라 하더라도 정벌의 성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자 쉽게 파직했다. 세종은 정벌의 평가를 부정하는 의견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는 정벌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 국왕의 권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의정 노한이 파직된 이후 조정에서는 정벌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전공 포상 조치를 반대하는 의견 자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정국은 1차 파저강 정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이 국왕 중심의 정국 주도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조선의 대외정벌에 대한 평가는 가시적인 패배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료들은 결코 실패를 언급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세조대까지 이어지고, 성종대가 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세종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외·국내 정치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제로 세조와 성종·연산군은 물론 중종·명종 등 조선전기의 국왕들은 모두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47) 『世宗實錄』 권79, 世宗 19년 10월 17일 계유

정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3. 북방 개척과 대외정벌

앞서 세종대의 대외정벌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보복의 성격 보다는 조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준비되어 시행되었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정벌의 목적이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정치에서 국왕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도 설명했다. 이 중 대외 영향력에 관련된 부분을 보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조선이 얻고자 했던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세종대 역점 사업이었던 북방 개척 문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군의 설치는 조선의 파저강 정벌이 준비되고 단행되었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4군의 본격적인 설치시기가 조선의 대외정벌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벌과 영토 확장 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비록 6진이 설치되었던 두만강 지역은 세종대에 정벌이 시행되지 않았지만 결국 세조의 집권기에 단행되었다. 더욱이 세종대 역시 두만강 일대에 대한 정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조선의 정벌과 영토 확장 문제의 연관성은 더욱 깊어진다. 조선초기의 대외정벌과 영토 확장은 모두 건국 직후부터 계획해 세종의 집권기에 실행해서 성과를 얻었던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대외정벌은 성공할 경우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정벌이 실패로 끝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초기의 국왕들은 정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했다. 국왕의 권위 신장과 정치 주도권의 확대를 위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이 바로 조선초기의 대외정벌이었다.

세종대는 상당한 준비를 갖추어 오랜 시간 동안 4군6진(四郡六鎭)을 설치했다. 4군6진의 설치는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압록강과 두만강을 조선의 영토 경계선으로 만들었다. 4군6진의 설치와 이와 관련된 조선의 영토 의식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한다.⁴⁸⁾

4군의 신설은 세종 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조에서는 시변강(時蕃江)의 자작리(慈作里)가 여연과 강계 사이에 있는 요충지가 되므로 따로 군읍을 설치하고 이름을 자성(慈城)으로 하자고 건의했다. 세종이 이를 받아들여 자성군이 설치되었다.⁴⁹⁾ 자성군의 설치하는 4군 신설의 시작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자성군의 설치 시점이 1차 파저강 정벌 직후였다는 점이다. 자성군의 설치가 조선의 정벌과 관련이 있다는 점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충분히 지적되었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이만주의 여연 침입이 조선의 정벌을 야기했고, 정벌을 계기로 4군의 설치가 본격화되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되었던 조선의 파저강 정벌은 야인의 침입을

48)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宋正炫, 1965 「世宗朝의 北方政策」 『湖南文化研究』 3

宋炳基, 1981 「3. 東北·西北界의 收復」 『한국사』 9, 국사편찬위원회

方東仁, 1995 「4. 4군 6진의 개척」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오종록, 2001 「세종 시대 북방 영토 개척」 『세종문화사대계』 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尹薰杓, 2005 「朝鮮前期 北方開拓과 領土意識」, 『韓國史研究』 129, 韓國史研究會

49) 『世宗實錄』 권60, 世宗 15년 6월 1일 임오

명분으로 사용했을 뿐 조선의 정치적 목표에 따라 준비되어 시행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처럼 4군의 설치도 북방의 영토를 확장하고 압록강을 경계로 삼고자 했던 조선의 북방 진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종대 대외정벌과 영토 확장 계획의 연관성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된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고려의 윤관은 17만 병력을 거느리고 여진을 소탕하여 주진을 개척해 설치했으므로, 여진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위령(威靈)을 칭송하니 그 공이 진실로 적지 않다. (윤)관이 주를 설치할 때 길주(吉州)가 있었는데, 지금의 길주가 예전 길주와 같은가? 고황제께서 조선 지도를 친람하시고 조서를 내리기를, ‘공험진(公嶮鎭) 이남은 조선의 경계다.’고 하셨다. 경들은 참고하여 아뢰라.” 했다. 상께서 이때 바야흐로 파저강 정벌에 뜻이 기울었기 때문에 이 같은 전교가 있었다.⁵⁰⁾

세종은 고려대 윤관(尹瓘)의 주진 개척과 설치를 언급하며 조선의 경계가 공험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같은 지시가 파저강 정벌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세종의 뜻이 반영된 것이었다는 점을 언급했던 사관의 기록은 당시 정벌이 조선의 영토 개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세종이 공험진을 언급한 부분을 통해 당시 그가 생각했던 조종구지(祖宗舊地)가 공험진까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다.

공험진에 대한 조선의 의식은 세종 이전 시기부터 나타나고 있다. 태종은 건주위 설치 문제로 인해 명이 압록강 북변 일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것을 우려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관이 세운 비석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⁵¹⁾ 결국 태종은 공민왕의 집권 당시 원과 홍무제가 공험진 이남에 대한 고려의 관할을 인정

50) 『世宗實錄』 권59, 世宗 15년 3월 20일 계유

51)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4월 27일 정유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과 여기에 속한 10처 인원에 대한 조선의 관할권을 요청했다.⁵²⁾

명에서는 칙서를 보내 조선의 요청 중 10처 인원에 대한 관권만을 인정해주었다.⁵³⁾ 공험진 이남의 관할권에 대한 명 측의 정확한 태도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이는 당시 명에서 조선의 공험진 이남에 대한 관할권을 다시 인정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홍무제에게 이미 관련 지역의 관할권을 인정받았던 조선은 당연히 공험진까지를 자국의 영역으로 생각했다.

파저강 일대에 대한 두 차례의 정벌을 마친 세종은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에게 공험진의 정확한 위치와 선춘령비(先春嶺碑)의 위치·내용 및 동북 9성의 위치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⁵⁴⁾ 두 차례에 걸친 정벌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험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뒤 조선의 영향력을 이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세종의 의도가 반영된 지시였다고 생각한다.

두만강 유역의 6진 설치도 4군의 설치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세종의 최측근이었던 김종서를 함길도 도절제사로 파견해 6진 설치를 주도하도록 했는데, 이 시기는 4군을 본격적으로 신설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겹친다.

6진 설치가 완성된 시기는 4군 설치 시기보다 늦었다. 하지만 조선에서 4군과 6진의 신설을 시작해서 완성하기까지의 시기는 대부분 겹치고 있다. 또한 두만강 유역의 유력 추장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여진 세력 간의 다툼 속에서 살해되자 조선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하고자 했다.⁵⁵⁾

두만강 유역에서는 압록강 유역과는 달리 세종대에 여진 정벌이

52) 『太宗實錄』 권7, 太宗 4년 5월 19일 기미

53) 『太宗實錄』 권8, 太宗 4년 10월 1일 기사

54) 『世宗實錄』 권86, 世宗 21년 8월 6일 임오

55) 『世宗實錄』 권62, 世宗 15년 11월 19일 무술

시행되지 않았다. 정벌과 북방 개척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일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세종은 이 지역에 대한 정벌 의사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세종은 함길도 변경 지역 야인들의 정보 제공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했다.⁵⁶⁾ 조선초기의 대외정보 활동 강화는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했지만 정벌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세종 19년(1437) 3월 김종서는 혐진 울적합(嫌眞 兀狄哈) 정벌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세종은 파저강 야인을 정벌했을 때와 비교하며 당장의 정벌 시행은 무익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⁵⁷⁾ 그렇지만 세종은 다음 달 김종서에게 홀라온에 대한 간첩 활동과 이들의 동정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⁵⁸⁾ 그리고 당장은 아니지만 천시(天時)를 기다리자며 울적합에 대한 출병 의사를 직접적으로 밝히는 상황에 이르렀다.⁵⁹⁾ 세종이 두만강 유역의 여진 세력에 대한 정벌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기록들이라 하겠다. 김종서는 세종 20년(1438)에도 이 지역에 대한 정벌을 건의했고,⁶⁰⁾ 두만강 유역 야인들의 동정에 대한 정보 활동 역시 계속되었다.⁶¹⁾

세종대 시행되지 않았던 모련위(毛憐衛) 정벌은 결국 세조대에 단행되었다. 세조대의 정벌은 모련위에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낭발아한(浪孛兒罕) 부자 등을 조선에서 처형했던 일에서

56)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1월 27일 무오 ; 『世宗實錄』 권75, 世宗 18년 12월 22일 계미

57) 『世宗實錄』 권76, 世宗 19년 3월 11일 신축

58)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4월 3일 계미

59) 『世宗實錄』 권77, 世宗 19년 4월 13일 임신

60) 『世宗實錄』 권80, 世宗 20년 1월 19일 갑진

61) 『世宗實錄』 권89, 世宗 22년 5월 6일 정미

비롯되었다. 자연스럽게 낭발아한의 남아 있던 일족들은 조선을 공격했고, 세조는 이를 명분으로 모련위 정벌을 단행했다. 전후의 사정은 크게 다르지만 조선에서 낭발아한 부자를 제거해서 모련위 야인들의 구심점을 없애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굳이 정벌을 단행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조선의 북방 진출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은 여진 정벌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직(授職)·내조(來朝) 정책이나 변경 지역의 무역을 통해서 야인들을 통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용과 시간, 인원을 동원해 정벌을 단행했던 것이라 생각한다.

4군6진의 설치로 설명되는 조선의 북방 영토 확장은 처음에는 크고 작은 요새였던 진(鎭)과 구자(口子)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방 지역 백성들의 대규모 이주와 이들에 의해 진행된 농경지 개간을 통해 뒷받침되었다. 아울러 진과 구자들을 연결하는 행성을 축조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이 가지고 있는 국경선으로서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했다.⁶²⁾

세종대 대외정벌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정벌 실패의 위험성에 관한 부분이다. 대외정벌의 성공은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다. 하지만 상당한 병력과 물자 등을 동원해 시행하는 만큼 정벌이 실패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만만치 않았음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조선에서는 높은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외정벌을 시행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세종은 태조나 태종처럼 자신의 능력으로 왕위를 승계 받은 인물이

62) 오종록, 앞의 책, 817쪽.

아니었다. 더욱이 후계자 순위에 앞서 있는 두 형을 대신해 왕위에 올랐다. 양평대군과 효령대군은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이었고 셋째로서 왕위에 오른 세종은 태조나 태종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 권위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실 태종이 굳이 상왕으로 남으면서 세종에게 왕위를 승계했던 것은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자신의 후계자였던 세종이 국왕의 역할에 보다 더 잘 적응하도록 배려하는 차원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방식은 세종도 문종에게 왕위를 넘기는 과정에서 거의 비슷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대마도 정벌의 시행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명의 일본 정벌 계획 등으로 인해 조선에서 대마도 정벌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대마도 정벌이라는 대규모 정책이 세종의 즉위년에 시행되었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마도 정벌은 태종이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세종의 왕위 안착을 돕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반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대마도 정벌의 성과를 통해 국체의 상승과 국왕권의 확대를 이미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 정벌의 실패를 신료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정국이 형성되었던 것에서도 대외정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와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태종이나 세종 역시 대외정벌의 실패가 가져올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특정 시점에는 정치적 결단을 통해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 국왕권의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국내적 사안으로도 정치적 결단을 통해 국왕권의 확대나 국왕의 정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설사 성공하더라도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국왕이 주도해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고, 이것이 대외정벌이었다.

대외정벌은 군사력을 동원해 외부 세력을 공격하고 성과를 활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정책이었다. 대외정벌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세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은 국왕이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훨씬 크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세종은 신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했던 것이다.

특히 파저강 재정벌의 결정 과정과 정벌 이후 논공행상 과정에서 보였던 세종의 태도나 독단적으로까지 보이는 국정 운영 방식은 세종이 정벌의 성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리고 세종의 이러한 국정 운영 방식은 집권 말년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세종에게 대외정벌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정책이었다. 이 때문에 세종은 정벌의 성공을 위해 누구와도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대규모 정보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정벌에 대한 많은 준비를 거쳐 실패의 위험성을 최소화했다. 실제로 대외정벌의 성공은 큰 성과를 가져왔고, 이를 통해 세종은 조선에서 보다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세종이 대외정벌을 이용했던 방식은 후대의 왕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4. 맺음말

세종의 재위기는 조선의 대외정벌 정책이 본격화되었던 시기였다.

세종은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저강 일대에 대한 재정벌을 단행했다. 이는 1차 정벌 때의 성과를 통해 세종의 국정 주도권이 확대되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파저강 재정벌에서 최우선 목표는 이만주의 포착이었다.

보다 중요한 원인은 압록강 일대의 여진 세력에 대한 명과의 주도권 문제였다. 조선은 사실상 자신이 영향력에 속해 있다고 생각했던 파저강 일대에 이만주 세력이 명의 승인을 명분으로 이주했던 상황을 좌시할 생각이 없었다. 따라서 조선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을 통해 압록강 일대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선의 정벌이 외적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당연히 울적합 정벌이 먼저 준비되어야만 했다. 당시 조선의 변경을 계속 침입하고 있었던 것은 이만주 세력이 아니라 흘러온 울적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종은 이만주 세력에 대한 정벌 의지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반면 울적합에 대한 정벌 의지는 강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의 대외정벌이 단순히 외부 세력의 침입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되어 시행된 대외정책의 하나였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천은 정벌군 8천여 명을 인솔하고 파저강 재정벌을 단행했다. 세종은 정벌의 전공에 따라 이천과 박안신 등에게 벼슬을 하사했다. 특히 이들은 조선 건국 이후 최초로 외임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을 겸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재정벌은 이만주 포착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정벌에 비해 획득한 전과도 매우 적었다. 하지만 세종은 재정벌의 성과를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세종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외·국내 정치에서 큰 성과를 얻었던 경험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실제로 세조와 성종·연산군은 물론 중종·선조 등 조선전기의 국왕 대부분은 대외 영향력 확대와 국내

정치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대외정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대외정벌은 세종대 역점 사업이었던 북방 개척 문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4군의 설치는 조선의 파저강 정벌이 준비되고 단행되었던 시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4군의 본격적인 설치시기가 조선의 대외정벌 시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정벌과 북방 개척 문제의 연관성을 잘 보여준다.

대외정벌은 성공할 경우 조선의 국위를 높이고 국왕 자신의 권위와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반대로 정벌이 실패로 끝날 경우 조선의 국위나 국왕의 권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 또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예측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초기의 국왕들은 정벌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행했다. 국왕의 권위 신장과 정치 주도권의 확대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이 바로 조선초기의 대외정벌이었다.

대외정벌은 군사력을 동원해 외부 세력을 공격하고 성과를 활용하기에 가장 알맞은 정책이었다. 대외정벌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의 세력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외정벌은 국왕이 정치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패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성과가 훨씬 크다고 예상되었기 때문에 세종은 신료들의 강한 반대에도 정벌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했다.

[원고투고일: 2015.4.4, 심사수정일: 2015.5.20, 게재확정일: 2015.5.22]

주제어 : 정벌, 대외정벌, 대외정책, 왕권, 대외관계

<ABSTRACT>

Re-conquest of the Pajeo River and Policies for
Conquering the foreign territory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of Joseon Dyansty

Lee, Kyu-chul

During the period of Sejong's reign over the Joseon, the policy for conquering foreign powers began discussing more seriously. Since the foundation of the Joseon, it had continued to show interests in the northern regions. In addition, the King Taejo and Taejong strived to secure influence in the surrounding areas of Amnok River and the Duman River,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with the Ming. One of these representative foreign policies of the Joseon was the 'onquest' against the savages.

In the face of strong protest from the retainers, Sejong was determined to carry out the re-conquest of the regions surrounding the Pajeo River. This showed that Sejong had expanded his political power over the country as a result of the first conquest. The ultimate goal of the Joseon occupying the Pajeo River again was to capture Lee Man Ju, chief of the barbarians called Jurchen. This was because the Joseon had an intention to spread its clout around by removing the figure playing a pivotal role within the Jurchen population in the region of Geonju-wi.

More importantly, it was the struggle with the Ming to gain the upper hand over the hegemony of the Jurchen group centering on the whole area of the Amnok River. It seems to me that the Joseon would not shut its eyes to the groups led by Lee Manju, who received the approval from the Ming to move them in the

Pajeo River area that the Joseon considered under its influence. Besides, the Lee Manju group put more emphasis on a close rapport with the Ming rather than with the Joseon. The Joseon, therefore, sought to obtain the actual control over the entire area of the Amnok River by getting rid of the forces of Lee Manju.

The foreign policy for conquests outside the Joseon was the most suitable and useful one to attack external influences using military strength and take advantage of the achievements. It's because such conquest policy could have an impact on foreign powers as well as domestic groups. This is why foreign subjugation became a proper type of policy that can be politically used in various ways. Since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a high possibility of failure, if it was successful, it would be expected to produce a bigger fruit, King Sejong took the lead to push ahead and carry out the conquest even when facing strong objection from his subjects.

Key words : conquest, foreign conquest, foreign policy, royal authority, foreign relationship

